

정밀화학분과 워크숍 ... 4백여명 참석

과총, 과학기술회관서 이틀동안 ... 외국인 연사 6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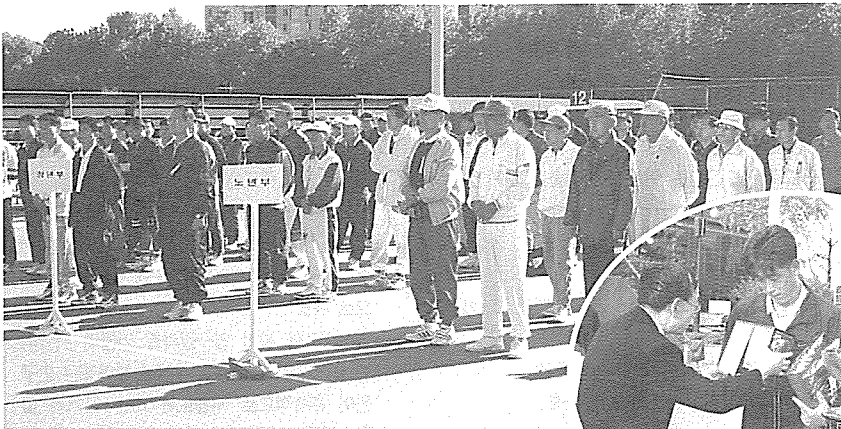
과총에서는 정밀화학분야의 국가전략적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5~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밀화학분과 워크숍(Chiral Korea 2000)'을 개최했다.

'2000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이 워크숍은 대한화학회를 비롯한 관련학회의 참여 속에 독일의 Carsten Bolm교수 등 6명의 외국 연사와 국내 연사 7명을 포함한 국내외 관계전문가 4백여명이 참석하여 토론과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제20회 과학기술인 테니스대회 성황

40팀 참가, 10월13일 잠실 올림픽테니스코트서



과학기술인의 친선과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마련되어 온 '제20회 과학

기술인 테니스대회'가 지난

10월 13일 잠실 올림픽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과총 회원단체와 관련기관 임직원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이번 대회에는 청년부 28팀, 장년부 6팀, 노년부 6팀 등 총 40팀이 참가하여 조별 예선리그와 결승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이 정해졌으며, 각 부별 우승·준우승 입상팀은 다음과 같다.

〈청년부〉 우승 : 박충기·송기덕(한국약용작물학회)/준우승 : 강구환·고영규(대한수의사회)

〈장년부〉 우승 : 성영호·김교준(한국체육학회)/준우승 : 홍종순·김종찬(대한위생학회)

〈노년부〉 우승 : 김진영·송삼홍/준우승 : 선우양국

·정인욱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과총 산학협동위원회(위원장 최덕인)는 2000년 7월 6~7일 양일간 개최한 「산학협동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전략」 워크숍에서 도출 채택된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10월 초 정부부처, 국회 및 관계요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전 주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특성화전략 개발

- 중앙정부 주도형 정책에서 벗어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금융기관을 중심축으로 각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화 및 차별화 정책 수립 (해외에는 지방은행이 Science Park에 참여하고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지방 분산(분원) 및 이전 설치 (국책은행의 지방분산으로 자금이 지역에 머물도록 할 것)

2.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 조세지원·기술개발 또는 공동연구를 위한 자금지원
- 기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과제의 협동연구 지원, 기술인력의 교류 및 양성 지원 등과 같은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산학협력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기존의 산학협력을 촉진

3. 벤처산업 육성자금 및 지방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 국내나 지방세의 일부를 벤처산업 육성기금으로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이나 아이템에 대한 자금지원
- 지방과학기술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
- 지역 특성화 과제를 지원하는 벤처 및 연구지원금 지원

4.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개별 경제주체간 상호이해 촉진과 정보교류를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학계와 연구소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협력체(테크노파크, 지역협력연구센터, 산학연컨소시엄 등)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 지역특성화 과제의 지원을 위한 지역 및 전국 네트워크 구성

5. 산·학·관 협의체의 구성

지역 내 연구개발자금 조성, 기술인력 양성, 기술개발지원체제 구축 등의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과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산학협동의 촉진을 위한 각종 시행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산·학·관 협의체의 구성을 추진

- 지방 정부는 산학관 협력 주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 주관하게 함.
단 주무책임자는 지방 공무원을 제외한 인사로 임명.

6. 연구개발 기술인력의 교류 및 양성지원

-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을 일정기간 지역 관련 업체에 파견·근무케하고, 산업체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지역 대학에서 수행
- 지역 대학에 연구장비 구축지원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연구시설로 활용
- 벤처기업인의 인재양성 과정 및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지역의 인력 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인적자원의 취입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7. 벤처기업 육성전략 추진

- 실험실 창업(spin-offs)을 유도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의 실험실을 기술개발과 창업에 적극적으로 활용
- 신기술의 지속적 개발·보급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초연구에서 창출되는 중저기술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
- 대학보육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벤처창업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술지원, 자금유치, 시장개척, 정보교류, 경영지원 등 지원 및 교육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첨단기술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
- 기술라이선싱기구(TLO)의 육성으로 기술이전 촉진
- Post-TBI(창업보육센터) 벤처단지의 조성으로 벤처성장지원이 시급
- 지방 벤처 Capital 및 엔젤의 육성
- 지방 벤처 지원 Network의 구축

8.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인력 양성체계 구축

- 대학 교과과정의 낙후성으로 인해 배출인력

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공계분야의 교육과정을 이룬중심에서 관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과 과정 및 교재 발굴을 강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수요를 예측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특정분야 소요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장기예측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당해연도 이공계 대학의 정원조정시 산업계에 대한 인력수요 조사결과를 반영
-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재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대학을 통한 연구인력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화 추세에 맞춰 사이버 대학과정의 개설·운영을 확대

9.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한시적 협동 연구 조직 운영

- 미래 기술발전은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타분야 기술이 결합 또는 융합됨으로써 새로운 기술혁신이 가속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분야가 출현하고 있으나 대학 및 출연기관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는 복합된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새로운 연구분야 개발을 위한 한시적 연구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 또한 대학내 우수연구집단, 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주제별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원 투입체계의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과제성격에 따른 산학연간 예산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자금사용의 주도권을 기초연구는 대학이, 공공연구는 연구기관이, 산업화연구는 기업이 맡도록 하고, 연구결과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제참여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유도
- 정부과제를 통한 연구결과를 기업이 사업화로 연계시키는데 있어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없음. 협동연구를 통한 정부과제 완료시 학·연기관의 참여 연구원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⑤7